



한국 6년만에 세계정상 도전

■ 청소년야구 선수권

한국이 6년 만에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결승에 진출했다.

광주일고 허세환 감독이 이끈 한국 청소년 야구 대표팀은 27일 새벽(이하 한국시간) 쿠바 상크티스피리투스의 호세 안토니오 우엘가 구장에서 열린 캐나다와 4강전에서 이두환(장충고)의 2점 홈런을 앞세워 6-1로 이겼다.

한국이 이 대회 결승에 진출한 건 우승을 차지했던 2000년(한국 우승) 이후 6년 만이다. 한국은 전날 이미 결승에 선착한 미국과 28일 오전 9시 결승전을 펼친다.

한국은 1회 초 공격에서 1사 1,3투의 기회를 놓쳤고 공수 교대 뒤 투수 양현종(동성고)이 캐나다 토타자 로리에에게 홈런을 얻어 맞았다.

그러나 한국은 0-1로 뒤진 2회 황인권(장충고)

이두환 결승 투런포...캐나다 6-1 제압

오늘 오전9시 세계 최강 미국과 결승전

과 김강(광주일고)의 볼넷과 이준수(신일고)의 몸에 맞는 볼로 1사 만투의 기회를 잡았고 김선빈(화순고)의 내야땅볼로 1-1 동점을 이뤘다.

이어 5회 김남형(인천고)의 볼넷에 이어 이두환이 좌측 펜스를 훌쩍 넘기는 투런포를 터뜨려 3-1로 뒤집었다.

6회에는 2사 1,3투에서 1루 주자 김선빈이 2루 도루를 감행한 사이 3루 주자 전준수(광주일고)가 과감하게 홈스틸을 성공시켜 4-1로 달아났다.

한국은 7회 김광현의 내야안타와 황인권의 중전안타, 김남석(광주일고)의 좌전 적시타를 묶어 다시 1점을 보태 캐나다의 추격권에서 멀어졌다.

허세환 청소년 대표팀 감독은 "게임을 거듭할 수록 조직력이 좋아지고 있고 홈팀이자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였던 쿠바를 꺾어 사기가 높아졌다"면서 "미국이 버거운 상대인 것은 틀림 없지만 전력은 아직까지 않고 투임, 총력전으로 맞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계청소년 야구대회에는 한국을 대표해 광주·전남지역 고교생 6명 등 모두 18명이 참가했다. 광주·전남에서는 양현종, 임익준(이상 동성고), 김강, 전준수, 김남석(이상 광주일고), 김선빈(화순고) 등 6명이 출전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7일 열린 프로암대회에 참가한 프로선수와 대회 초청인사들이 가을들어 푸르름을 더해가면서 최상의 양진디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함평다이내스티CC에서 라운딩을 즐기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KLPGA '女帝' 가린다

스타투어 3차대회 오늘 개막...함평다이내스티CC서 열전 3일



한국여자프로골프 2006 KB국민은행 스타투어 3차대회가 27일 프로암대회에 이어 오늘 개막된다.

깊어가는 가을정취를 한껏 만끽할 수 있는 4개월 양진디 코스를 갖춘 함평다이내스티CC(파72·6천297야드)에는 이번 대회에 임하는 선수들의 열기가 하루 앞선 프로암대회에서부터 가득했다.

이번대회 우승 0순위로 꼽히고 있는 함평골프고 3학년 '슈퍼루키' 신지애(18·하이마트)는 "잔디나 그린 상태가 좋은데다 오랜만에 고향에서 대회를 치르게 돼 편한 마음으로 경기를 즐기고 싶다"고 말했다.

신지애와 상금왕을 다투고 있는 박희영(19·이수건설)은 "최근 매 게임에서 언더파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대회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특히 시즌 3승고지에 대한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양 선수는 이번대회에서 시즌 3승을 기록하겠다는 각오다.

한국여자프로골프의 '양강체제'를 굳혀가고 있는 신지애와 박희영은 상금랭킹, 최우수선수 포인트, 평균타수 등 주요부문에서 1,2위를 달리고 있는 명실상부한 최정사 라이벌이다.

상금순위에서 2억4천143만6천원으로 1위인 신지애가 1억9천46만8천원의 박희영을 앞서가고 있지만 이번 대회를 포함 앞으로 6개대회가 남아 있어 상금왕 타이틀 행방을 점치는 아직 이르다.

연말에 밝는 최우수선수상 수상자를 결정하는 대상 포인트에서도 신지애가 147점으로 박희영

(131점)을 따돌리고 있지만 방침할 차이는 아니다. 그러나 이번대회는 신지애와 박희영의 2파전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이들의 경쟁상대는 2006 KB국민은행 스타투어 1차대회 우승자 안선주(19·하이마트), 그리고 평균타수 3위(70.48타)에 올라있지만 아직 시즌 첫 우승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최나연(19·SK텔레콤)도 강력한 우승후보다. SK엔크리솔루션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 깜짝 스타로 떠오른 '열짱' 홍진주(23·이동수골프)와 최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켈리파인스쿨 1차예선을 수석합격하고 귀국한 문현희(23·힐라 코리아)와 송보배(20·슈페리어), 홍란(20·이수건설)등도 우승을 탐내고 있는 선수들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열짱' 홍진주 "그린 난이도 높아 퍼팅이 우승변수"

분위기 화기애애...프로들 초청인사에 한 수 지도

■ 스타투어 프로암대회 이모저모

○27일 열린 프로암대회에는 백인심·양남식 국민은행 부회장, 홍석규 KLPGA 회장 등이 시타를 한후 출전선수 40명과 초청인사들이 라운딩을 했는데 서로를 배려하는 등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

초청 인사들은 동반 프로에게 그린에서 퍼팅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연습 퍼팅기회를 주거나 파3 홀에서는 두번의 샷기회를 주는 등 대회

를 대비해 샷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배려를 했고, 프로들도 그림잡는 법부터 샷하는 요령까지 자상하게 지도하는 등 서로에게 마음을 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이날 프로암대회를 치르고 난 프로들은 한결같이 '난이도가 높다'며 함평 다이내스티 CC의 그린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

'열짱' 홍진주(23·이동수골프)는 "그린이 약간 느린 듯 하면서 난이도가 높아 이번대회에서 퍼팅이 우승행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했고, 홍란(20·이수건설)도 "그린이 2단, 3단 그

린이어서 퍼팅이 쉽지 않았다"고 격정.

○한국여자프로골프의 '양강'으로 꼽히는 신지애(18·하이마트)와 박희영(19·이수건설)은 이번대회 우승을 위해서는 8언더파를 기록해야 할 것으로 전망.

신지애는 "페어웨이 잔디가 긴 편이고 그린 이 어려워 8언더파 정도를 치면 우승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함평골프고 3학년에 재학중이기 때문에 주변 기대가 커 다소 부담이 된다"고 웃음. 박희영도 "그린이 어려워 8언더 이하를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자평.

○최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켈리파인스쿨 1차예선을 수석합격하고 26일 함평에 도착한 문현희(23·힐라코리아)는 "미국에서 귀국이 늦어 이번대회에는 부담없이 여행하는 기분으로 왔다"며 "어제 부모님과 인근 펜션에서 바베큐 파티를 했다"고 귀띔.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보배의 완벽한 퍼니스

27일 함평 다이내스티CC에서 열린 KLPGA KB국민은행 스타투어 3차전 프로암대회 18번홀에서 송보배가 티샷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